

미국, 청량음료 5종서 벤젠 검출

FDA, 건강상 우려 없다 발표 ... 환경단체는 상당한 문제 반박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5월19일 100종 이상의 청량음료와 주스류 등을 검사한 결과 5종에서 연방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벤젠(Benzene)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FDA는 문제 제품의 제조기업들은 경고를 받았으며, 성분구성 등 제품 제조방식을 바꾸었거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의 제품은 세이프웨이 실렉트 다이어트 오렌지, 크러시 파인애플, 아쿠아칼 스트로베리 플래버드 워터 베머리지, 크리스털라이트 선라이즈 클래식 오렌지, 자이언트 라이트 크랜베리 주스 칵테일 등이다.

FDA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노출되는 양에 비하면 음료를 통해 흡수하는 것은 아주 적은 양”이라며 “건강상의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청량음료나 주스류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5/23>